

남녀 경계 허문 ‘젠더리스룩’ 돌풍

AK몰 남녀공용 라운드티 매출 4배이상 ↑
운동화는 이미 남녀구분없이 공용제품 대체
삼성물산 남성복 ‘준지’는 여성모델 등장도



패션

‘젠더리스가 대세.’
패션 업계 아이콘으로 ‘젠더리스(genderless)’가 뜨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 ‘중성성’을 표현한 것으로, 남녀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일명 ‘남녀 경계 없는 크로스 쇼핑’을 말한다. 7일 AK몰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정장스타일의 여성용 슬랙스(실용 바지) 매출이 약 6배 이상(512%) 급증했고, 오버사이즈 코트 매출은 2배(101%), 일자바지는 1.5배(50%), 와이드팬츠는 1.2배(20%) 증가했다. 또 반대로 핑크톤 라운드티·셔츠 등의 남성의류는 약 3배 이상(279%) 증가했고, 남성 액세서리 커피스는 2배(100%) 늘어난 것이 단적인 예다.

패션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 패션부문 남성복 ‘준지’가 종결자로 꼽힌다. 최근 열린 ‘2017년 가을-겨울 시즌’ 파리컬렉션에서 여성 모델들을 등장시켜 화제를 모은 것. 총 26명의 모델 중 11명의 여성 모델이 ‘준지’의 새 컬렉션을 착용하고 무대에 올랐는데, 남성복 패션쇼에 여성 모델이 오른 것은 평소 ‘젠더리스’ 성향을 추구해 온 ‘준지’ 브랜드의 스타일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이 매년 20%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는 것도 스포츠웨어를 즐기는 여성 고객이 늘었음에 기인한다. 세정 ‘센터폴’이 여성 스포츠 라인 강화에 나서고, 뉴발란스가 우먼스 리테일 전문숍을 오픈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최근 론칭한 LF ‘질스튜디오스포츠’ 역시 여행·운동 등 활동적인 여가와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25~35세 남녀 고객이 주요 타깃



남녀 공용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힐라 ‘코트 디럭스’. AK몰에서 판매하는 남성용 핑크 셔츠, 남성복 패션쇼에 여성 모델이 등장해 화제를 모은 삼성물산 패션부문 ‘준지’의 파리컬렉션. (왼쪽부터) 사진제공 1 삼성물산 패션부문·힐라·AK몰

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운동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요가·필라테스 등 여성 피트니스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관련 상품을 찾는 여성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 남녀공용 제품의 출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AK몰 자료에 따르면 남녀공용 라운드티 매출이 약 4배 이상(324%) 증가했고, 남녀공용 패딩도 1.5배(57%) 늘었다. 특히 일상에서 신는 운동화의 경우 이미 남녀 구분이 없는 공용 제품들이 대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힐라 ‘코트 디럭스’의 경우에도 전체 판매량 중 여성 구매자의 비중이 6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젠더리스’룩이 보편화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과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젠더리스’룩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제품 대신 유니섹스 형태의 제품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이는 올 봄·여름 시즌 패션 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옥 기자 jiaay@donga.com



세정 모델 김성령의 올 봄 ‘데일리리스트’
김성령이 싱그러움 매력을 뽐냈다. 모델로 활약 중인 세정 ‘데일리리스트’ 2017년 봄 화보를 통해서다. 화보에서 김성령은 이번 시즌 색상 트렌드와 함께 ‘데일리리스트’가 선보일 부드럽고 로맨틱한 스타일링의 정석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정옥 기자·사진제공 1 세정



인사

대상 ▲식목BU장(전무) 임정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상임이사 ▲전무이사 민원식 ▲광고진흥본부장 김성규 ▲미디어사업본부장 윤백진 ▲광고영업본부장 성낙중
KTB투자증권 ◇전무 선임 ▲금융시장 본부장 김세훈

이비스 엠베서더 서울 명동& 인사동 ◇총지배인 선임 ▲이병철 상무이사

■ 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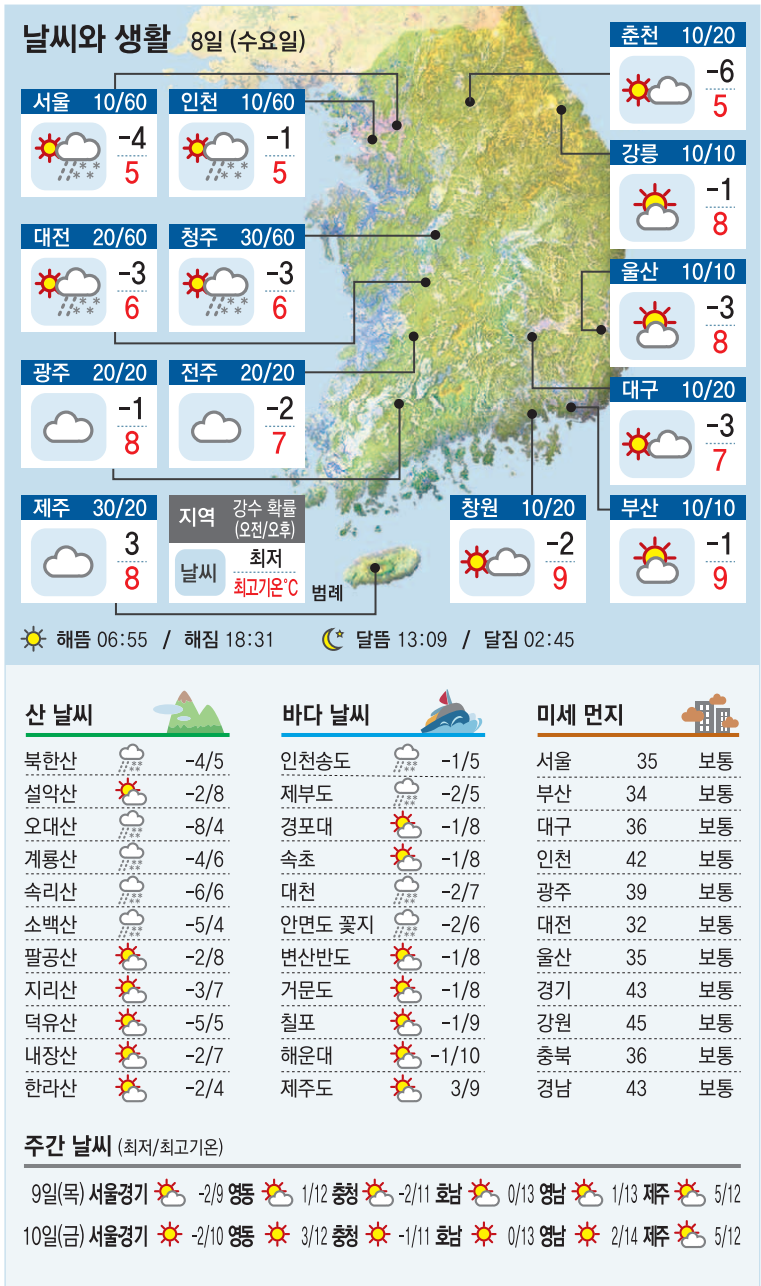
▲손은택(전 경남도의회 의원)씨 별세, 최성례씨 남편상, 손주는(메가스터디그룹 회장)·성은(메가스터디교육 대표)·은하·은실(장신대 교수)·은정(대한연세교장

로회 목사)·은진(메가스터디 이사)씨 부친상, 김성오(메가스터디그룹 부회장)·박노양(한국정교회출판사 근무)·이상복(창동염광교회 목사)씨 장인상, 김정미·김정아씨 시부상=6일 오전 3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30분 (02)3410-6917
▲김민희씨 별세, 송현석(오비맥주 부사장)씨 모친상=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 발인 8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 스토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토쿠.kr

1	7	9	6	8	2	8	9	2
6	2	8	1	7	9	6	1	9
5	2	8	9	8	1	2	6	7
8	6	5	7	2	8	9	2	1
9	8	2	1	9	2	6	7	8
2	1	7	6	9	9	2	8	1
2	8	6	8	1	7	9	5	9
8	9	1	9	2	6	7	8	2
7	9	2	2	9	8	1	6	6

7	9	1	6	9	2	2	8	8
2	6	8	1	7	8	9	9	2
9	2	8	5	8	2	1	6	7
8	2	6	2	1	9	7	8	9
2	7	9	8	2	8	6	1	9
8	1	9	7	6	9	2	8	1
9	9	2	2	8	1	8	7	6
1	8	7	8	2	6	9	9	2
6	8	2	9	7	7	8	2	1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8일(수요일) 음력:2월 11일

	쥐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만사가 행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득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건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패정, 상괘, 운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투자자와의 거래성사가 있는 날이다.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만족, 운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친구나 주변인의 유혹으로 음주 가무에 빠지기 쉬운 날이다. 길방: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무슨 일이나 자신감이 충만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위주가 되어 아내가 힘들어한다.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오늘의 마음:패정, 힘찬 하루, 운세: 상사나 주변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거래가 성립되며 수입이 증대된다. 직장인은 승진의 운이며, 미혼자는 남녀 불문하고 결혼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다. 매사 일회일비 하다보면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일에 끝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침착한 자세로 머리를 싸라.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신기루, 공상 많다. 운세: 오늘은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욕하고 일어난는 기운의 날이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길방:북
	개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길방:서
	돼지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하는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길방:동
	재운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4, 7, 9, (5, 0)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토끼, 양, 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쥐, 용, 원숭이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편집인 이성훈	편집부 02 2020 1032	경제부 02 2020 1062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1부 02 2020 1041	비즈니스전문 02 2020 1027
편집국장 이승욱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건부 02 2020 1069
인쇄 동아일보사	기사 의뢰 전화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